

현장시선



김정도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사무국장

화력발전 대기오염 문제, 제주도와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제주도 내에서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문제가 최근 화두로 떠올랐다. 가스(LNG)발전소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NOx) 배출 사례가 지난해 2817회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왔다. 이는 하루 평균 7.7회꼴로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는 의미다. 더불어 기준치 초과 범위도 심상치 않다. 최소 6.4배에서 최대 22.1배에 달한다. 가스발전소가 위치한 제주시 삼양동, 한림읍,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권 침해 우려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위반이 '면책 시간'에 맞춰져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스발전소 저감장치는 고온에서만 정상 작동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가열이 충분히 되지 않은 가동 후 5시간과 가동 중단 후 2시간 동안은 기준치를 초과 배출해도 법외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 배출 사례가 지난해 2817회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왔다. 이는 하루 평균 7.7회꼴로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는 의미다. 더불어 기준치 초과 범위도 심상치 않다. 최소 6.4배에서 최대 22.1배에 달한다. 가스발전소가 위치한 제주시 삼양동, 한림읍,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권 침해 우려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차분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748회나 발생했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책임을 진 사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초과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화력발전소인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국회의원이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석탄화력발전소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를 크게 웃도는 경우까지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6기의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과거와 비교해 개선된 사항을 찾기

어려웠다. 대부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배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제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기오염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곧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에 분명한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도정과 의정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위기의 산부인과, 특단 대책 서둘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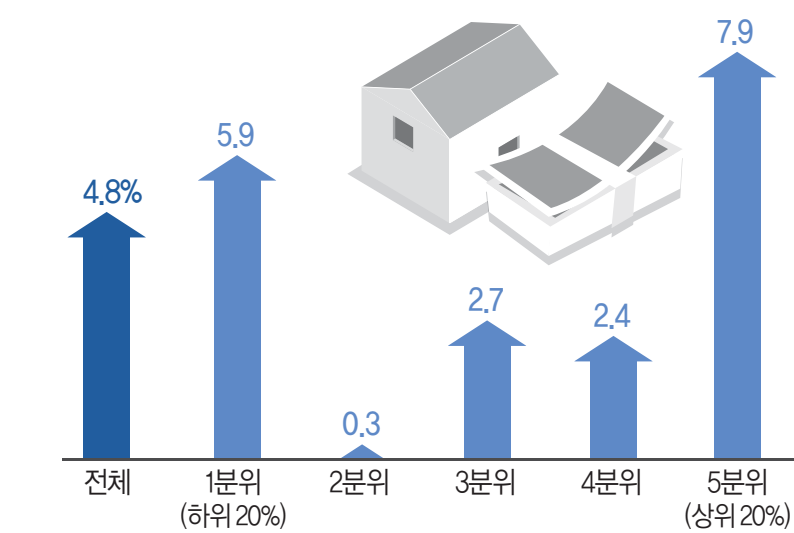
제주시내의 한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다. 도내 신생아 분만의 28%가량을 담당해 온 중추 분만 의료기관이다. 열악한 도내 분만 인프라가 최악의 지경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분만 인프라를 가능할 수 있다. 도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4년 14곳에서 2024년 9곳으로 줄었다. 분만건수는 2014년 5436건에서 2024년 3039건으로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울산·세종(각 7곳)이다. 제주 9곳으로 네 번째다. 의료기관의 증감을 살펴보면 위기 정도를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제주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변

화'를 보면 2023년 도내 의료기관 수는 1032개로, 2013년에 비해 40.4% 증가했다.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순으로 늘었다. 반면 산부인과는 20곳으로 1곳 줄었다. 분만 건수 감소와 저수가 구조, 고위험 임신·분만 증가, 의료분쟁 위험, 전문의 인력난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전문가들은 산부인과 필수 의료 인프라가 몰락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수도권 제외 전 국 각지에서 몰락의 조짐이 확인되고 있다. 제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위기의 적은 곳은 광주·울산·세종(각 7곳)이다. 제주 9곳으로 네 번째다. 의료기관의 증감을 살펴보면 위기 정도를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제주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변

그래픽 뉴스

가계 분위별 소득 증가율

2024년 가계 총본원소득(GNI) 잔액 증가율, 전년 대비
\* 가계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얻은 소득



연말뉴스

자료: 한국은행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anri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information.

열린마당

6월,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제1기분 자동차세'



송형중
서귀포시 표현면사무소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에 자동차세의 성격과 납세의무자, 납부 방법 등을 시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취득하는 시점에 한 번 부담하는 '취득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종의 '재산세' 성격을 띠며, 과세기준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즉, 자동차라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셈이다. 납부 시기는 1년분 세액을 나눠 부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분에 대해서는 6월(제1기분)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유분에 대해서는 12월(제2기분)에 각각 후불제로 고지된다. 다만,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지방세법'에 따른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기 납부 기간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단,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로 연장 운영된다. 납부 방법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를 비롯해 ARS(142211),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보... 온열질환 주의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보됐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폭염에 따른 개인별 건강관리와 함께 행정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486명이 발생해 전국의 3.5%를 차지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연평균 환자는 97명이다. 2023년부터 최근 3년 평균 기준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는 16.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의 84.4%는 실외에서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이 35.0%로 가장 많았다. 작업장과는·밭에서 발생한 사례가 절반이 넘는 57.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안전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인

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일자로 '여름철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구급차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8대의 펌볼린스 예비출동대를 편성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실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행정의 선제적 대응도 요구된다.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열대야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도·행정시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Advertisement for Baekdoraji Balm (백도라지 분말)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former official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an Gilim Research Institute.

Advertisement for land search services (토지 후손 찾기) by Jeju Land Research Institute, offering to find heirs for landowners.

Advertisement for architectural and construction services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by Bangsu Construction, specializing in steel structures.

Advertisement for advertising services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by Hanri Ilbo Advertising, featuring a woman on a phone.

Advertisement for a medical clinic (가족모자·문증모자 허가 대행) by Dr. Han Ja, offering various medical and administrative services.